

# ‘물폭탄’ 쏟아진 해남군, 집중호우 피해복구 ‘구슬땀’

### 전 직원 비상근무 발령...읍·면별 대민 지원 명현관 군수 “조속한 피해복구 역량 집중”

해남군이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따른 전 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읍·면별 피해 현장을 찾아 대민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21일 하루동안 해남군 산이면 366mm를 비롯해 평균 262.4mm의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도랑가 침수, 소하천과 저수지 제방 5개소가 유실되는 등 공공시설 19개소를 비롯해 주택 45가구 침수, 비와 배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3천521ha가 침수 및 도복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남군은 많은 비가 예상된 이번 집

중호우에 대비해 19일 상황판단회의에 이어 20일부터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직원 비상근무와 읍·면별 현장점검으로 실시간 대응했다. 특히 21일에는 전체 직원 비상근무와 함께 명현관 해남군수가 직접 주요 피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고 없이 재해에 대처할 수 있었다.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은 읍·면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즉시 복구를 완료하고, 대피 조치된 주민들도 대부분 귀가한 상황이다. 침수피해가 컸

던 농경지는 배수작업을 완료하고, 읍·면별 피해 현황을 조사 중이다. 특히 수확철을 맞은 배의 병해충 확산과 도복에 따른 수밭아 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신속한 방제와 조기 수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수인성 감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2일부터 긴급 방역기동단을 구성해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살균·살충을 위한 긴급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해남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해 부득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됐다”며 “조속히 복구를 마무리하고, 군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기자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22일 화원척북1제 집중호우 피해복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 ‘완도 전복’ 추석 선물 인기...“주문량 63% 증가”

### 1천341건 주문...전년비 판매 금액 26% ↑

완도군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진행한 ‘수산물 특별 기획전’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전복(사진) 판매량이 급증했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 특산물 소평물인 ‘완도청정마켓’에서 열린 ‘2024 풍요로운 추석 기획전’을 통해 활 전복, 김, 미역, 다시마, 멸치 등 다양한 수산물이 판매됐으며 전복은 1천341건의 주문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복 주문 건수는 63.7%, 판매 금액도 26.2% 증가했다. 우제국 소포를 이용한 발송 건수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7% 증가한 2만9천건에 달했으며, 이중 전복 발송 건수는 20만4천건으로 전체 발송의 8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전복 주산지인 노화, 보길 지역의 전



복 택배 발송 건수도 4.4% 증가했다. 또한 제철장터, 육선, 부산동백전(어플) 등 다양한 채널에서도 약 1천300건의 전복이 판매됐다. /완도=윤보현기자

전복 판매량 증가는 경기 침체와 물가 부담으로 인한 ‘짬뽕 소비’가 두드러지면서 3만원에서 5만원 미만 가격대의 전복 세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추석 맞이 기획전은 주문량 증가로 쿠폰 제공 예산이 소진되면서 완도 수산물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어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 촉진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 강진군, 2회 추경 6천265억 편성

### 1회 추경비 5.3% ↑ ...“주민생활 밀접사업 우선”

강진군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6천265억원으로 최종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제 수입 저조 등 재정 여건 악화로 올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우선 순위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6천15억원, 특별회계 25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5.3%, 316억원(일반회계 312억원, 특별회계 4억원)이 증액된 수준이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63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2억원, 특별교부세 25억원, 국·도비보조금 111억원, 순세계영여금 6억원, 전년도 이월금 44억원 등 총 312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사업비 136억원, 전년도 이월금 44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45억원이 고정

지출되며,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시급한 사업, 내년에 계획된 축제 대비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군도3호선 확·포장 공사 9억원 ▲강진군 육아수당 5억원 ▲강진만 패류감소 공익 소송비 지원 3억원 ▲영농스마트팜 예정부지 매입 3억원 ▲코끼리 마늘 품앗이 조성 1억2천만원 ▲농기계 지원사업 8천400만원 ▲공공배달업 택배비 활성화 지원 5천400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교부세 및 세수가 감소해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의결과정에 따른 군비 부담분 45억원이 고정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90여명이 무안군의 환대를 받으며 입국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 무안군,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본격 투입

### 단기 노동력 집중 농·어가 인력난 해소

무안군은 23일 “지난 11일과 20일 입국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24명(필리핀 34명, 라오스 90명)을 영농 현장에 본격 투입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무안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리핀 실랑사·라오스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나서 올해 상반기 318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지난 11일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34명은 농가에 배정해 영농작업에 투입했으며, 20일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90명은 42개 농·어가와 전남서남부채소농협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배정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입국한 계절근로자들과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준수 사항을 교육했다. 장오중 농업정책과장은 “타국에서 온 계절근로자들이 무안군의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근로기준과 인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 영광 8개 청년단체, 장세일 후보 지지 선언

### “현실·구체적 청년정책 공감”

영광군 8개 청년단체가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를 지지했다. <사진> 지지에 동참한 청년단체는 백수읍, 흥농읍, 법성면, 염산면, 군남면, 불갑면, 묘량면, 대마면 청년회 등 8개 단체다. 이들 단체는 “장세일 후보는 영광에서 6년을 한결같이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으니 누구보다 영광을 잘 알 것이라 믿는다”며 “청년, 젊은 엄마·아빠, 젊은 농부, 젊은 소상공인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장 후보는 영광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며 “발표한 공약을 보면 영



광을 골목골목까지 파악하지 못하고선 결코 내놓을 수 없는 세심한 공약”이라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군의회와 도의원 시절에도 그랬듯이 항상 영광군민과 영광 청년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치를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영광의 일꾼이자 영광 청년들의 본보기인 장세일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영광=김동규기자

## 영암군 ‘쌀값 하락 대응’ 지역 사회 뭉친다

### 내일 달빛청춘마루서 군민협의체 개최

영암군이 ‘영암형 지역사회 대타협’으로 쌀값 하락 문제를 풀어가려 방침이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25일 영암읍 달빛청춘마루에서 영암군과 영암군의회, 지역농협,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쌀값 하락 대응 영암군민협의체’를 개최한다. 영암군은 그동안 쌀값 안정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마케팅 ‘쌀캐팅’을 추진하고, 서울 은평구와 광주 서구의 직거래장터를 포함한 ‘쌀 소비촉진 범군민운동’으로 지금까지 1만7천여포의 쌀을 판매했다. 이 밖에도 2023년 벼 재고상황 점

검, 농민·농협 쌀값 대책 간담회, 지역 집단급식소에서 영암 쌀을 구매할 시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나아가 해외원조곡 등 민간물량 6천269t 매입에 이어 이달 말까지 2023년산 3차 해외원조곡 1천483t을 매입할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쌀값 하락 문제를 지역사회 대타협으로 풀기 위해 영암군민협의체 운영에 들어간다”며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농업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군 차원의 혁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나동호기자

## 목포시, 청년도전지원사업 페스티벌 성료

### 청년 유공자 시상·취업 상담·전시·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목포시가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청·도·지(청년도전 지원사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개최된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시가 주최하고 (재) 전남인력개발원이 주관한다. 행사에는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조성오 목포시의회의장, 시의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목포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청년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년 유공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 진로 탐색, 취업 상담, 전시·체험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 행사 마지막

에는 참여자 모두가 전남도민의 3대 속원인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임원을 담은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총사업비 991천500만원)은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39세 구직 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에서 진행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10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현재 7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복지, 청년 주거 등을 중심으로 청년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목포시가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